

베요 Bello 문법의 재조명(I)

— 시제이론을 중심으로 —

김 한 상 (경희대, 서어학)

I. 서 론

서반아어 문법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은 1847년 베네수엘라의 문법학자 A. Bello에 의한 『서반아어 문법 *Gramática Castellana*』의 출판이라 할 수 있다. 1981년 스페인의 R. Trujillo¹⁾는 이 Bello의 문법이 지니는 시공을 초월한 현대성을 당대에 다시 조명할 목적으로 Bello 문법에 대한 비평적 해설서를 출판하였으며, 그 서문을 통하여, “서문학 작가들 중 가장 위대하다는 세르반테스도 이제는 역사 속에 묻혀 버렸지만, Bello의 문법은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가장 훌륭한 문법서”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A. Alonso²⁾도 P. Henríquez Ureña와 공동으로 저술한 문법에서, “중남미의 가장 위대한 스승인 Bello의 서반아어 문법을 반복하여 읽고 숙지할 것”을 서반아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것만 보아도 Bello의 『서반아어 문법』이 지니는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물론, Bello의 『서반아어 문법』이 출판되기 이전에도 이미 1771년에 스페인 왕실 한림원의 첫번째 문법서(*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가 발표된 바 있으며, Bello의 문법이 주로 중남미에서 읽혀진 반면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는 Bello와 동시대의 학자인 Vicente Salvá³⁾가 1830년에 저술한 *Gra-*

1) Bello A.,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ACT, Tenerife, Edición crítica de Ramón Trujillo, 1981, p. 15 참조.

2) Real Academia Española,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Impr. de D. Joaquín de Ibarra. 1771.

*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según ahora se habla*가 서반아어 문법을 대표하고 있었으며, 이 문법서가 1897년에 그 12판이 출판된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법을 참고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페인에서는 José Manuel Calleja(1818), Gómez Hermosilla(1839), Lorenzo de Alemany(1838), Joseph Pablo Ballot(1845) 등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정리한 서반아어 문법을 출판한 바 있으나, Gómez Asencio⁴⁾가 평가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저술들이 독창성이 없이 라틴 문법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문법이라기보다는 어법에 가까운 것들로 서반아어의 올바른 사용법 내지 서반아어를 바르게 쓰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지침서들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Bello의 『서반아어 문법』은 다른 문법서들과는 대조적으로 라틴어 문법의 영향권을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라틴어가 아닌 개별 로망스어로서의 서반아어의 특징을 가장 논리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Bello의 개별적 특징에 중점을 둔 문법 기술은 후일 A. Alonso⁵⁾에 의해 Bello 문법의 장점이자 동시에 취약점이라고 지적 받은 바 있지만, Bello(1982, 29)가 그 문법의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는 서반아어 문법 기술에 있어 반드시 보편적 언어 법칙들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각 언어는 각기 독특한 형태, 표현 방법 및 특성을 지

3) Salvá V.,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según ahora se habla*, París, Librería Hispano-América, 1830. Bello도 자신의 문법 서문에서 스페인 한림원 문법과 Salvá의 문법을 참조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Salvá의 문법은 서반아어의 어법을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였다고 평가했다(Bello A.,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EDAF, 1982, p. 30 참조). F. Abad는 Bello와 Salvá가 동시대의 학자로서 1914~1820년에 런던에서 함께 지내며 서문법에 대한 토론을 자주 가졌지만, Salvá는 일반 문법을 추구했고, Bello는 개별 문법을 추구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Op. cit.*; Bello, 1982, pp. 11~12 참조).

4) 1771년 스페인 한림원 문법은 문법을 “올바르게 말하는 기술 *arte de hablar bien*”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Mata, Araujo(1805), Calleja(1818), Ballot(1845) 등의 문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Gómez Asencio J. J., *Gramática y categorías verbales en la tradición española(1771~1847)*, Salamanca, Ediciones Univ. Salamanca, 1981, pp. 18~23 참조).

5) Amado Alonso의 Bello 문법에 대한 연구는 “Introducción a los estudios gramaticales de Andrés Bello”(publicado en el Vol. IV de las *Obras Completas* de Bello, Cáracas, 1951)에 집약되어 있는데, 주로 Bello의 동사에 관한 연구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니는 것이며, 만약 학자들이 문법을 기술함에 있어 모국어가 다른 외국어들과 어떠한 공통점을 지니는가 하는 문제에 치중한다면 이는 올바른 문법 기술이라 할 수 없다.”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Bello의 『서반아어 문법』은 개별 문법을 통해서만이 개별 언어에 대한 올바른 기술이 가능하다는 개별 문법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당시의 일반 문법들은 모두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문법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는데, 서반아어 문법에 있어서는 Nicolas Beauzée가 1767년 저술한 *La Grammaire générale*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José Gómez Hermosilla의 *Principio de gramática general*(1835)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개별 문법을 지향하는 당시의 서문법들과는 달리 말하고 쓰는 기술 arte이 아닌 과학 ciencia으로서의 문법을 주창하고 문어가 아닌 구어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Vicente Salvá(1830) 이후에는 결국 언어의 보편적 측면보다는 개별적 특성의 추구로 방향을 바꾸었다. Bello의 경우에도 Condillac과 Beauzée의 영향을 적지않이 받은 바 있지만, 서반아어 문법에 대한 충분한 기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언어의 일반성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시기상조로 판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Bello의 문법은 출판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반아어 문법 연구에 있어서는 예외없이 인용되며 현대 서반아어 문법에 끼친 영향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서반아어에 있어 술부의 핵이자 문장의 핵인 동사의 기술에 있어서는 현대적 감각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

서반아어 동사의 문법적 범주 *categorías gramaticales*로는 시제 tiempo, 상 aspecto, 법 modo, 인칭 persona, 수 número의 5가지를 나열하는데, 이들 중, 상의 경우에는 그 형태소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시제의 형태소에 포함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문법적 범주를 4가지로 제한하고 상을 독립적 범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칭과 수는 그 기능이 형태적인 것에 국한되어 문법적 의미의 전달도 단순하지만, 시제와 법은 구조와 용법이 통시적·공시적 제한을 받아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구성요소의 형태와 의미의 해석도 함께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5가지의 문법적 범주 가운데서 시제와 법을 진정한 의미의 문법적 범주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나열한 5가지 문법적 범주들 중에서 특히 시제에 초점을 맞추어, Bello의 문법이 제시하는 시제이론이 무엇이며, 이 이론이 후일 서반아어 시제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서반아어의 시제를 구성하는 요소들로는 직설법의 *canto, canté, cantaba, cantarí, cantaré, he cantado, hube cantado, había cantado, habría cantado, habré cantado*의 10가지 형태와 접속법의 *cante, cantara(-se), haya cantado, hubiera(-se) cantado*의 4가지 형태를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접속법의 4가지 형태는 비록 각각 고유의 시제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지만,⁶⁾ 실제의 발화 상황에서는 항상 접속법의 출현과 연계되어 법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제의 의미를 법의 의미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법상 순수하게 시제적 의미만을 표현하는 직설법의 10가지 형태를 중심으로 한 시제이론⁷⁾으로 제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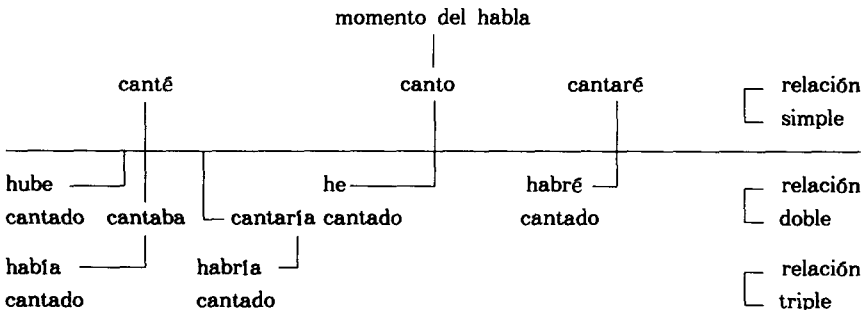
6) 접속법 형태들이 지니는 고유의 시제 의미에 관한 연구로는 M. Suñer와 J. Padilla Rivera의 “Concordancia temporal y subjuntivo”(publicado en *Hispania*, 70, 1987, pp. 634~42)와 M. Suñer의 “El tiempo en la subordinada”(publicado en *Tiempo y aspecto en español*, ed., Ignacio Bosque, Madrid, Cátedra, 1990, pp. 77~105)를 참조할 수 있다.

7) 서반아어의 시제 이론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째, 전통문법의 시제 연구들로는 스페인 한림원 문법과 A. Alonso, P. Henríquez Ureña(1964), Gili Gaya(1961), Alcina y Bleuca(1975) 및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Bello(1847)의 문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구조 및 기능 문법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Togeby(1953), Alarcos(1949, 1975), Pottier(1975), Lamíquiz(1982), Hernández Alonso(1973, 1984)의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와 Cartagena(1978), Bull(1962), Rojo(1974, 1988, 1990) 등의 기능적 관점에 바탕을 두는 연구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J. J. Acero(1990)처럼 Reichenbach의 논리학에 근거하여 서반아어의 시제 형태를 정의하는 연구와 M. Suñer(1990)와 같이 시제구조보다는 그 형태들 간의 연계성 및 문맥 중심의 시제일치 규칙에 중점을 두는 연구도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 A. López García(1990)가 발표한 서반아어의 시, 상, 법의 총체적 구상을 시도한 연구를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마지막 부류의 연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 글의 주제인 Bello의 이론과 직, 간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II. Bello의 시제이론

Bello(1981, 407~425)의 서반아어 시제구조는 각 시제형태들 tiempos verbales과 기준발화시점(momento del habla 또는 momento en que proferimos el verbo)과의 관계에 근거를 둔 것으로, 그 관계가 단순한(relación simple) 형태로는 기본 시제들인 현재(canto: presente), 부정과거(canté: pretérito), 미래(cantaré: futuro)를 제시하며, 이 세 형태들과 기준발화시점과의 관계는 각각 'CO-', 'ANTE-', 'POS-'가 되겠다. 이 세가지의 기본 시제들이 기준발화시점과 직접적 관계를 지니는 반면, 현재완료(he cantado: ante-pretérito), 불완료과거(cantaba: co-pretérito), 가능법과거(cantaría: pos-pretérito), 직전과거(hube cantado: ante-pretérito) 및 미래완료(habré cantado: ante-futuro)는 기준발화시점과 이중관계 relación doble를 지니며, 앞서 나열한 단순 관계의 3가지 기본 시제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과거(había cantado: ante-co-pretérito)와 가능법과거완료(habría cantado: ante-pos-pretérito)의 경우는 기준발화시점과 삼중관계 relación triple를 갖는 시제들로 각각 이중관계에 있는 불완료과거 co-pretérito와 가능법과거 pos-pretérito에 대하여 직접적 관계를 형성한다. Bello의 이와 같은 시제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기본적 의미 *significado fundamental* 외에도 특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이 기본 의미로부터 파생하는 이차적 의미 *sgdo. secundario*와 은유적 의미 *sgdo. metafórico*를 갖는다고 했다.

- (1) !Cuántas veces verás en el discurso de la vida que las personas en quienes has colocado tu confianza, te *traicionan*! (Bello, 41)
- (2) Díjome el arzobispo que cuando percibiese que su pluma se *envejecía*, ... (*Ibid.*)
- (3) Con este bálsamo no hay que temer a la muerte; y así cuando vieres que en alguna batalla me *han partido* por medio del cuerpo. (*Ibid.*)
- (4) Prevínole que cuando viese que en alguna batalla le *habían partido* por medio del cuerpo. (*Ibid.*).

예문 (1), (2), (3), (4)에서 이탤릭체로 표기된 “traicionan”, “envejecía”, “han partido” 및 “habían partido”는 각각 ‘futuro’, ‘pos-pretérito’, ‘ante-futuro’ 및 ‘ante-pos-pretérito’를 의미하고 있다. 또 Bello(1981, 416)에 의하면, 이와 같은 기본적 의미에서 이차적 의미의 파생은 일정한 법칙 *ley constante*에 의거하는 변형이며, 다름아닌 현재 의미에서 미래 의미로의 변형(CO→POS-)이라는 것이다.

- (1') Presente→Futuro
- (2') Co-pretérito→ Pos-pretérito
- (3') Ante-presente→ Ante-futuro
- (4') Ante-co-pretérito → Ante-pos-pretérito

(1'), (2'), (3'), (4')에서 볼 수 있는 「CO→ POS-」의 의미 전환은 도표 (1)에서 볼 때 각각 기준발화시점과의 단순관계(1'), 이중관계(2', 3'), 삼중관계(4')를 유지하는 형태 간에 이루어진 의미의 수평이동이라는, 구조적으로 무리가 없는 변형임을 알 수 있고, 구조상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형태들이 생성하는 각기 상이한 의미 변형을 하나의 일정한 법칙으로 함축한 Bello의 직관은 놀라우리 만큼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 의미에서 이차적 의미로의 변형은 특정한 통사적 상황 — cuando, si 등의 구문 — 에서나 이루어지는 의미의 단순 변화인데 반해, Bello가 말하는 은유적 의미 significado metafórico의 파생은 시제 의미의 변화 외에도 시제외적 의미 significado extratemporal의 생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 (5) Echó mano a la espada, y con ella desnuda acudió furioso a donde le llamaba su honor. Siente otra espada desnuda, que hace resistencia a la suya... (Bello, 424)
- (6) El mes que viene hay un eclipse de sol.(*Ibid.*)
- (7) Yo iba ayer al campo, pero amanecí indispuerto, y tuve que diferir la partida.(*Ibid.*)
- (8) Tiene su mamá en predicar, y el pueblo le oye con gusto: habrá en esto su poco de vanidad.(*Ibid.*)
- (9) Tendría el prelado unos sesenta y nueve años.(*Ibid.*)
- (10) Todavía se descubría en sus facciones que en su modalidad habría hecho puntear a sus rejas bastante guitarras.(*Ibid.*)

예문(5)에서 “siente”와 “hace”는 “sintió”와 “hizo”를 대신한 것으로, 과거를 사용해야 할 경우를 현재형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의미에 있어서도 과거가 현재로 바뀌면서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가 마치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을 줌에 따라 시제 의미의 변화 외에도 생동감 viveza이라는 시제외적 의미가 획득된다. Bello(1981, 423)는 이와 같은 효과가 대과거를 현재완료로 대체하였을 때에도 똑같이 얻어진다고 했다. 한편, (6)과 (7)에서는 현재나 불완료과거가 시간적으로는 각각 미래와 가능법과거의 의미를 획득하며, 아울러 미래의 의미가 동반하는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시제외적 의미를 얻어내고 있다. 또한, (8), (9), (10), (11)에서는 미래, 가능법과거, 미래완료 및 가능법과거완료가 각각 현재, 불완료과거, 현재완료 및 대과거의 시제를 대신하면서 공통으로 ‘추측’내지 ‘추정 probabilidad’이라는 시제외적 의미를 동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앞서 나열한 은유적 의미의 창출을 위한 시제 의미의 변형

상황을 정리해 보면,

- (5') Presente → Pretérito
- (6') Presente → Futuro
- (7') Co-pretérito → Pos-pretérito
- (8') Futuro → Presente
- (9') Pos-pretérito → Co-pretérito
- (10') Ante-futuro → Ante-presente
- (11') Ante-pos-pretérito → Ante-co-pretérito

「CO- → ANTE-」의 변형(5')은 '생동감'을, 「CO- → POS-」의 변형(6', 7')은 '확실성'을, 「POS- → CO-」의 변형(8', 9', 10', 11')은 '추정'이라는 시제외적 의미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앞서 (1), (2), (3), (4)의 예문에서는 「CO- → POS-」의 의미 전환이 단순히 통사적 상황에 근거한 이차적 의미의 생성에 불과하지만, (6)과 (7)에서는 '확실성'이라는 은유적 의미를 생성하는 의견상 모순적인 기술에 있다.

(1)과 (2)의 “traicionan”과 “envejefta”가 각각 주절의 동사인 “verás”와 “percibiese”와 관련된 상대적 의미로서 미래와 가능법과거를 의미하게 된 것처럼, (6)에서는 “el mes que viene”라는 시간 부사의 도움으로 현재가 미래의 의미를 얻었다고 볼 수 있으며, (7)의 경우에는 “iba”가 “irfa”를 대신했다기보다는 “querfa ir” 또는 “tuve el plan de ir”를 대신한 것으로 “por poco me morfa”나 “me dió un dolor tan fuerte que me morfa”의 문장들에 사용된 것과 같은 일종의 “co-pretérito de conato” —— ‘미수’의 의미의 불완료과거 —— 로서 Bello가 말하는 ‘확실성’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ello의 은유적 의미의 파생은 결과적으로 (5)와 같은 “역사적 현재”나 (8), (9), (10), (11)에서 볼 수 있는 “추정의 미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Ⅲ. Bello와 전통문법

서반아어 문법 내에서 전통문법의 범주에 속하는 문법서는 A. Nebrija

(1492,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이후 금세기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지만, 대다수의 문법서들이 다소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앞서 출판한 서적들을 별다른 수정없이 재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중 문법을 하나의 규범적 체계로서 정립하여 전통문법의 기본정신인 “서반아어를 바르게 쓰고 말하는 법”을 올바르게 유도한 것은 A. Bello, 스페인 한림원(RAE), Gili Gaya, A. Alonso, P. Henríquez Ureña, J. R. Cuervo 등 몇몇에 불과하고, 문법의 기술 방법상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해 온 것으로는 Bello의 문법과 스페인 한림원 문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Bello의 문법은 1847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1850, 1853, 1857, 1860년의 네 차례에 걸친 수정 보완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고, 스페인 한림원 문법은 1771년 처음 출판되어 1796년 4판으로 절판되었다. 초판에 대한 수정판이 1870, 1913, 1931년에 각각 출판되었으며, 1973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방범론을 달리하여 소위 전통문법의 범주를 떠나 구조문법에 가까운 문법으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이 장구한 서문법 기술의 역사 속에서 시제에 관한 기술이 어떻게 변모하여 왔는지 알아보는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는 다음의 도표 (2)와 같이 대표적 문법서들에 정의된 각 시제의 명칭을 비교하는 일이다.

도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A. Nebrija는 “canto”, “canté”, “canta-ba”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들을 모두 복합 시제 *por rodeo*로 간주하고 있다. 오늘날 단순형으로 굳어진 미래(*cantaré*)와 가능법과거(*cantaría*)가 어원적으로 각각 “cantar+he”, “cantar+hía”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15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이와 같은 복합형에서 오늘날과 같은 단순 형태로 정착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태에 근거하여 시제를 구분하는 방법은 1913년 스페인 한림원 문법에서부터 단순형 *forma simple*과 복합형 *forma compuesta*을 명칭에 포함함으로써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⁸⁾

8) R. Trujillo에 의하면, Bello의 서반아어 시제와 동사 전반에 걸친 이론은 1847년 *Gramática castellana*가 출판되기 전인 1841년 Bello의 *Análisis ideológica de la conjugación castellana*에 이미 그 윤곽이 드러나 있었으며, 이 연구서도 출판 년도인 1841년보다 30년 전에 이미 Bello에 의해 편집되어 있었다는 고증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cantaría”를 직설법 형태로 분류한 것이 Rask가 아닌 Bello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Nombre Forma verbal	Nebrija (1492)	Bello (1847)	GRAE (1913)	GRAE (1931)	Gili Gaya (1961)	GRAE/ ESBOZO (1973)
canto	presente	presente	presente	pres.	pres.	pres.
canté	pasado acabado	pretérito	pret.perf simple	pret. indef.	pret.perf. absoluto	pret.perf. simple
cantaba	pasado no acab.	co-pret.	pret. imperf.	pret. imperf.	pret. imperf.	pret. imperf.
cantaría	pasado no acab. por rodeo (subj.)	pos-pret.	pret. imperf. (subj.)	potencial simple o imperf.	futuro hipotético	condicio- nal
cantaré	venidero por rodeo	futuro	futuro imperf.	futuro imperf.	futuro absoluto	futuro
he cantado	pasado acabado por rodeo	ante-pre- sente	pret.perf compuesto	pret. perf.	pret.perf. actual	pret.perf. compuesto
hube cantado	pasado acabado por rodeo	ante-pre- téríto	pret.perf compuesto	pret. anterior	ante-pre- téríto	pret. anterior
había cantado	pas.más que acab. por rodeo	ante-co- pretéríto	pretéríto pluscpf.	pret. pluscpf.	pluscuam- perfecto.	pret. pluscpf.
habría cantado	pas.más que acab. por rodeo (subj.)	ante-pos- pretéríto	pretéríto pluscpf. (subj.)	potencial comp. o perfecto	ante-fut. hipotético	cond.perf.
habré cantado	pasado por rodeo	ante-fut.	futuro perfecto	futuro perfecto	ante-fut.	fut.perf.

〈도표 2〉

Bello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문법에서 부여한 시제의 명칭에는 “acabado”와 “inacabado”(Nebrija) 또는 “perfecto”와 “imperfecto”의 구분(1913, 1931, 1973년의 *GRAE* 및 Gili Gaya)이 되어 있어, 일견 시제의 구분에 상 *aspecto*의 의미가 접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진정한 의미의 완료/불완료의 상의 대립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perfecto”, “imperfecto” 및 “pluscuamperfecto”라는 개념들은 이미 라틴어 문법에서부터 사용된 것으로

그리스어 동사의 상의 의미에 해당하는 “acabado”, “inacabado”, “más que acabado”를 번역한 어휘들이지만 순수한 상의 의미를 표현했다기보다는 시제의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G. Rojo(1990, 19)가 지적한 것처럼, “pluscuamperfecto”라는 명칭 자체가 “más que acabado”라는 시간적 의미만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즉, “perfecto”나 “imperfecto”가 상의 의미를 떠나 시제적 의미만을 가지고 사용된 경우이나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편, Bello에 의해 “pos-pretérito”와 “ante-pos-pretérito”로 정의된 “cantaría”와 “habría cantado”는 Nebrija와 1913년의 한림원 문법까지는 접속법 불완료과거 및 접속법 대과거로 간주되고 있고, 1931년 한림원은 이 두 형태를 접속법으로부터 분리시키기는 했으나 직설법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각각 가능법 과거 potencial simple 및 가능법 과거완료 potencial compuesto로 정의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법(modo potencial)을 만들었다. Gili Gaya와 한림원의 1973년 문법(*Esbozo*)은 이들을 직설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두 형태를 바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이 두 형태가 갖는 의미적 특징을 고려하여 각각 “futuro hipotético”, “ante-futuro hipotético” 및 “condicional”, “condicional perfecto”로 명명하고 있다.

R. Trujillo(1981, 19)에 의하면, R. Rask가 1827년 “SPANSK SPROGLAERE”를 통해 처음으로 “cantaría”를 직설법 시제 형태로 분류하였지만, Rask의 이러한 기본적 구상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이 형태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은 다름아닌 Bello의 업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Trujillo(1981, 55)는 서반아어에 있어서 본래의 의미와 문맥 속에서 얻어지는 의미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의 분화과정을 처음으로 지적한 학자가 Bello이며, 이는 “cantaría”의 정의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고 했다.

즉, Bello(1981, 420)는 “cantaría”가 “과거에서 본 미래 posterior a una cosa pretérita”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는 Bello가 구축한 시제구조(도표1 참조)의 기준발화시점에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영역으로 “cantaría”가 어떻게 “ayer”, “ahora”, “mañana” 등 서로 상충하는 의미를 지닌 시간의 부사와 광범위하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cantaría”와 비교할 때 미래 시제(cantaré)는 기준발화시점에서 절대적

미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Gili Gaya(1961, 167)는 “cantaría”를 ‘futuro hipotético’로 정의함으로써 의미되는 미래의 시간적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Gili Gaya가 “cantaría”를 직설법 시제로 인정하고, “cantaré”와 비교하여 가정적 내지 추정적 미래로 규정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Bello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1913년 한림원 문법은 “cantaría”를 접속법 과거로 분류하였고, 1931년 한림원은 다시 가능법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1931년까지 한림원은 시제의 기술과 관련해서 Bello의 문법이 갖고 있는 구조적 논리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31년 한림원 문법에서는 “canté”를 부정과거 pretérito indefinido로 정의하는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⁹⁾. 1931년 한림원은 ‘canté’를 “expresa la coincidencia del predicado con el sujeto en tiempo indefinidamente anterior al momento de su enunciación, sin indicar si la situación está o no terminada”로 정의함으로써, 1913년 한림원 문법에서 “canté”를 종료된 행위나 동작을 의미하는 “pretérito perfecto simple”로 정의한 것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불문법에서 “canté”에 대응되는 시제 형태를 “passé indéfini”¹⁰⁾로 정의한 것을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1931년의 한림원 문법이 모국어 문법의 문제를 외국어 문법에서 찾으려 하는 오류를 범했다면, Gili Gaya와 1973년의 한림원 문법 — *Esbozo*의 시제에 대한 기술은 Gili Gaya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 은 그 해결책을 Bello에서 찾고 있다. Gili Gaya(1961, 153)는 아래의 도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시제구조를 Bello가 제시한 삼분법(presente, pretérito, futuro)에 기준을 두고, 이를 다시 표현하는 행위의 종료여부 — Gili Gaya는 이를 현대적 의미의 완료/불완료에 근거한 상의 대립으로 간주한다 — 를 기준으로 “perfecto”와 “imperfecto”로 구분하고, 동시에 Bello가 정리한 바 있는 기준

9) 현재 국내의 서반아어 문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시제 형태들의 명칭은 1931년 스페인 한림원 문법의 명칭을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canté”가 형태의 의미와는 전혀 무관한 “부정과거”로 불리는 것을 비롯하여, “cantaría”와 “habría cantado”를 “가능법” 시제로 부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여겨진다.

10) Rojo G., “Temporalidad y aspecto en el verbo español”, *LEA X/2*, 1988, p. 198 참조.

발화시점과의 관계 — Bello는 이를 단순, 이중, 삼중 관계로 삼분하였음:
 도표1 참조 — 를 일부 수정하여 절대시제 absolutos와 상대시제 relativos
 로 구분하고 있다.

	imperfectos		perfectos	
	Absolutos	Relativos	Absolutos	Relativos
presente	canto			
pretérito	cantaba		canté he cantado	había cantado hube cantado
Futuro	cantaré	cantaría		habré cantado habría cantado

〈도표 3〉

도표(1)에서 제시한 Bello의 시제구조와 도표(3)에서 보는 Gili Gaya의 시제구조가 드러내는 근본적 차이점은 Bello가 “he cantado”를 “ante-futuro”로 간주하여 기준발화시점과 이중관계를 갖는 형태로 정의한 데 비해, Gili Gaya는 이를 절대시제로 간주하는 것과, Bello가 “había cantado”와 “habría cantado”를 기준발화시점과 삼중 관계를 갖는 형태로 정의한 데 비해, Gili Gaya는 이들을 단순히 상대시제로 간주하여 Bello의 시제구조상 이중관계의 형태들과 동일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차이점도 그다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될 수 없는 것이, 우선, Bello가 정의하는 기준발화시점이 오늘날 시제이론에서 제시하는 시간의 축을 따라 이동 가능한 기준점 — G. Rojo의 origen: 1974 참조 — 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시제 presente의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he cantado”와 “canté”는 시간의 축 위에서 가리키는 것이 동일하며, 이러한 측면에 근거하여 Gili Gaya가 “he cantado”에 “canté”와 동일한 시제 의미를 부여하고 절대시제의 하나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결국 Bello와 Gili Gaya는 “he cantado”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había cantado”는 Bello의 문법이 쇠어질 당시와 용법이 변화하여 오늘날 이미 “hube cantado”를 밀어내고 대과거로서 위치를 굳힌 상태¹¹⁾이

11) J. Cerny가 제시하는 canté/había cantado/hube cantado의 대립관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Cerny J., “Tiempos pretéritos compuestos y la estructura del sistema ver-

며, “habría cantado”도 Bello가 정의한 기준발화시점과의 삼중 관계로서의 기본적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차적 의미 또는 은유적 의미로 사용되는 빈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¹²⁾을 감안하면, Gili Gaya의 시제구조는 결국 Bello가 만들어 놓은 구조를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기능 및 구조 문법에 반영된 Bello의 시제이론

서반아어의 구조 및 기능 문법 내에서 다루어진 시제이론들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로, 시제형태들이 지니는 변별적 자질을 우선적으로 설정한 후 일련의 대립과정을 거쳐 시제구조를 형성한 것으로는 E. Alarcos(1949, 1975) 및 K. Togeby(1953)가 제시한 모형을 따르는 B. Pottier(1975), V. Lamquiz(1982), C. Hernández Alonso(1973, 1984)의 시제 연구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첫번째 계열과 방법을 달리하여 Guillaume의 심리적 분석 방법을 서반아어 시제구조에 적용한 M. Molho(1975)의 시제이론을 꼽을 수 있다. 세번째 그룹은 N. Cartagena(1978), W. Bull(1960), 및 G. Rojo(1974, 1988, 1990)의 연구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시제구조를 제시하는 데 있어 시간의 방향축을 가상적으로 설정한 후 서반아어의 시제형태들이 이러한 가상적 방향축 위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정의하

bal”, *Español Actual*, 22, 1972, pp. 1~10 참조).

canté(pasado)	
	había cantado(anterior)
	hube cantado(inmediato)

이 그림에 나타난 포함관계에 의하면, “hube cantado”는 “había cantado”에 비해 ‘inmediato’란 자질의 사용이 반드시 ‘inmediatez’를 표현하는 시간의 부사(apenas, luego que 등)를 동반하는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질이 없는 “había cantado”(–inmediato)가 “hube cantado”를 중화 neutralización하여 “hube cantado”의 사용이 축소되고, 동시에 어휘화 lexicalización하는 것은 당연한 역사적 변화라 할 수 있다.

- (12) “habría cantado”가 시제구조에서 정하는 기본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구어상 거의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제외적 사용이 일반적이다(Kim H. S., “Contribución al estudio del sistema verbal en el habla de Madrid”, Tesis doctoral inédita, Univ. Complutense de Madrid, 1987, p. 301 참조).

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들 중 두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M. Molho의 시제 이론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Bello의 시제이론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먼저, Togeby를 포함한 Pottier, Lamfquiz, 및 Hernández의 시제구조는 아래의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다(Lamfquiz, 1982, p.41 참조).

		pasado +	presente o	futuro -
subj. -	inactual -		cantara(2)	cantare
	actual +	cantase	cante	
ind. +	inactual -	cantara(1)	cantaba	cantarfa
	actual +	canté	canto	cantaré

〈도표 4〉

도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시제구조를 ‘pasado’(+) , ‘presente’(0), ‘futuro’(-)로 삼분하고, 이를 다시 ‘inactual’(-)과 ‘actual’(+)로 양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제구조가 Bello의 시제이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방법론에 있어 각 시제 형태가 어떠한 변별적 자질(‘pasado’, ‘actual’)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형태들과 어떠한 대립을 형성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첫번째 구분 기준, 즉 시제 형태들을 과거, 현재, 미래로 삼분하는 것은 Bello의 시제 구분과 일치하며, 특히 “canto”와 “cantaba”에 ‘0’의 자질을 부여하는 것은 Bello가 이 두 형태를 「CO-」로 정의한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형상 새로운 개념으로 보이는 ‘actual’과 ‘inactual’의 구분도 Bello가 이미 정의한 바 있는 기준발화시점과의 관계 설정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니다. ‘actual’과 ‘inactual’의 구분은 비단 이들 뿐만 아니라 E. Coseriu(1976)의 시제이론에서도 나타나는데, 다름아닌 Benveniste(1966)의 ‘discurso’와 ‘historia’의 구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Pottier(1975, 12)가 인용하는 아래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 (12) Cuando llegó, me dijo: “llamaré a Juan.” →
 - Me dijo que llamaría a Juan.
- (13) Cuando llegó, me dijo: “llamo a Juan.” →
 Me dijo que llamaba a Juan.
- (14) Cuando llegó, me dijo: “llamé a Juan.” →
 Me dijo que llamara(1) a Juan.

(12), (13), (14)에서 알 수 있듯이, “llamaría”, “llamaba”, “llamara(1)”는 각각 직접화법의 “llamaré”, “llamo”, “llamé”가 “dijo”에 이끌리는 간접화법으로 바뀌면서 얻어지는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Alarcos(1975, 137~13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시제일치의 규칙들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¹³⁾ Bello가 정의한 시제 형태들과 기준발화시점과의 삼중 구조를 이중 구조로 바꾸어 놓은 Gili Gaya의 상대시제와 절대시제의 구분보다도 오히려 퇴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canté”의 ‘inactual’한 형태로 “cantara(1)”를 제안한 것은 비록 어원적으로는 이 형태가 대과거를 의미하였지만——스페인 북부 Galicia 방언에서 일부 발견된다; Gili Gaya, 1961, p. 179 참조)——오늘날 “cantase”와 함께 접속법 과거형으로만 사용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서반어어의 시제구조에 대한 이와 같은 일련의 그릇된 판단은 시제형태간의 대립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설정한 데에 원인이 있다. 즉, 시제를 삼분화해야 하는 당위성에 연연하여 ‘presente’를 ‘0’의 자질로 간주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대립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pasado’(+)와 ‘futuro’(-)가 외형상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고, ‘pasado’를 변별적 자질이 있는 형태(+)로 간주하는 것은 결국 ‘futuro’를 의미하는 형태들이 ‘pasado’의 자질이 없는 시제 형태들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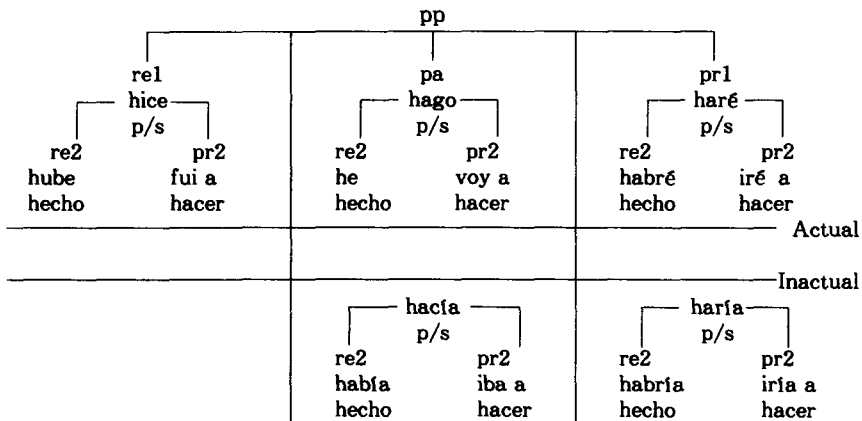
13) ‘inactual’과 ‘actual’이 시제구조상 대립관계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Alarcos가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자질들이 문맥적 특질에 불과하여 화자가 발화시에 자유 제약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Pottier가 제시한 예문들은 시제 형태들 사이에 존재하는 방대한 시제일치 규칙의 일부에 불과하다(Alarcos E., “Otra vez sobre el sistema verbal español”, 1975, recogido en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Madrid, Gredos, 1984, pp. 137~139 참조).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Alarcos(1949)의 시제구조는 ‘pasado’와 ‘futuro’를 모두 변별적 자질로 인정하여 현재 시제(canto)를 이 두 자질이 모두 결합된 형태로 처리(-pasado, -futuro)함으로써 Lamfquiz 등이 혼란에 빠뜨린 시제구조에 방법적인 일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Alarcos는 Bello와 달리 “cantaba”에 “canté”와 똑같은 시제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 두 형태의 대립을 순수한 상의 대립(cantaba/canté: -terminativo/+terminativo)으로 간주하는 것이 특징인데, 상의 대립의 설정에 있어 지나치게 대칭적인 구조만을 의식하여 “había cantado”와 같은 복합 시제 형태를 ‘불완료’형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Alarcos와 Lamfquiz 등의 시제 연구는 방법론상 구조주의를 표방함으로써 Bello의 시제이론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비해, Cartagena(1978), Bull(1960) 및 Rojo(1974, 1988, 1990)의 경우에는 Bello의 이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Rojo(1974)의 시제이론은 Bello이론의 현대적 또는 과학적 재정립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Bello의 모든 점을 수용하고 있다.

Cartagena(1978)의 시제연구는 Bello의 「ANTE-」, 「CO-」, 「POS-」의 구분 기준을 명칭을 바꾸어 「retrospectiva」, 「paralela」, 「prospectiva」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Bello가 정의한 기준발화시점과 시제 형태와의 삼중



〈도표 5〉

적 관계의 설정을 두 개의 가상적 시간의 방향축(*perspectiva primaria/perspectiva secundaria*)으로 대신하고, 또 이를 Lamfquiz 등이 사용한 ‘actual’과 ‘inactual’의 구분을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시제구조를 만들고 있다(Cartagena; 1978, 375-383 참조).

도표(5)의 Cartagena의 시제구조는 Bello의 「ANTE-」, 「CO-」, 「POS-」의 개념을 “ir a+infinitivo”를 활용하여 절대시제들인 “hice”, “hago”, “haré”에 각각 확대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발화시점과 이중 관계에 있는 “hacia”와 “haría”에까지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Bello의 시제구조(도표 1 참조)공백을 완전히 메우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제구조는 모든 시간적 상황을 중복 없이 각기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시제구조에 “ir a + infinitivo”와 같은 동사구를 포함시켰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즉, “-o”, “-e” 등의 시제 형태소가 표현하는 문법적 의미를 우회적인 방법(*perfrasis verbal*)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경우 “acabar de+infinitivo”와 같은 동사구가 현재완료(*he cantado*)를 대신하여 시제구조의 또 다른 구성요소로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힘든 이론적 문제점을 지닌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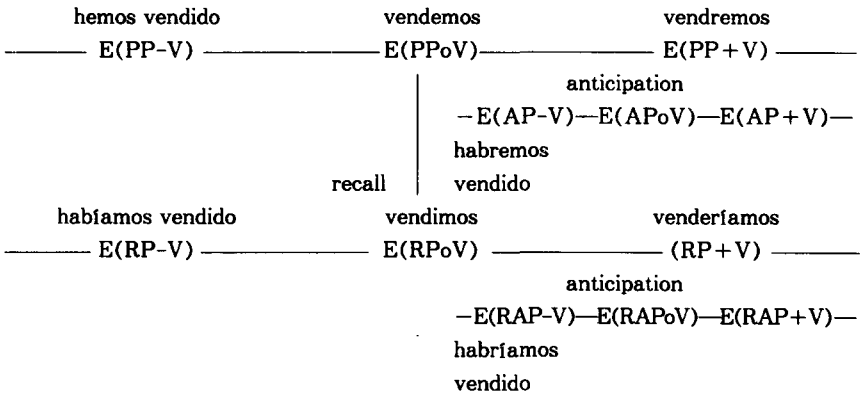
한편, Cartagena와는 달리, Bull(1962)과 Rojo(1974, 1988, 1990)의 시제 연구는 가상적 시간의 방향축 *representación hipotética del eje de orientación temporal*의 설정에 있어, 기준발화시점 *origen*의 이동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Bello가 만든 시제구조의 평면성을 극복하고 있다.

Bull의 시제구조(1960, 20)는 Bello의 기준발화시점을 PP(*present point*)로 정하고, 이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4개의 방향축을 만들고 있는데, 기본 방향축만이 PP의 지배를 받으며 나머지 3개의 방향축들은 각각

14) 동사구를 시제구조에 포함시킨다면, *ir a+infinitivo* 외에도, 현재완료의 의미를 지니는 *acabar de+infinitivo*, *tener+participio pasado* 등과 같은 형태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제구조의 형성에 이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시켜서는 안되고 동사의 형태적 특징 *carácter morfológico*을 기준으로 하여 의미적 대립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제구조에 *acabar de+infinitivo*, *estar+gerundio*, *ir a+infinitivo*를 포함시킨 Cerny(1972, *Op. cit.*)의 시제구조도 Cartagena와 똑같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PP의 이동 시점인 RP(retrospective point), AP(anticipated point), RAP(retrospective anticipated point)가 새로운 기준 시점을 형성한다.

Bull은 Bello와는 달리, 기본 방향축인 PP위에 놓이는 절대시제들을 “hemos vendido”(PP-V), “vendemos”(PPoV), “venderemos”(PP+V)로 정하여 현재완료(hemos vendido)가 과거(vendimos)를 대신하여 기본시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기본 시점 PP의 과거로의 이동 시점인 RP의 방향축의 중심 시제(RPoV)를 “vendimos”와 “venderíamos”의 두 형태로 정의하여 이들이 시제의 차이는 없이 오직 상의 대립만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RP-V와 RP+V를 각각 “habíamos vendido”와 “venderíamos”로 정하여, 직전과거(hubimos cantado)를 시제구조에서 제외시키고 있다(Bull;1960, 20~7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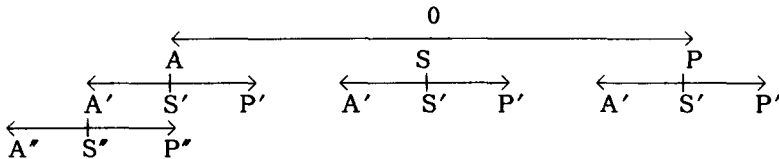
〈도표 6〉

이와 같은 시제구조에서 외형적으로는 4개의 방향축이 각각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축 PP와 PP의 과거로의 이동축인 RP가 주요한 두 방향축이며, AP와 RAP는 각각 PP와 RP에서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본축 PP의 중심인 PPoV를 현재형으로 정하고, PP의 과거 이동축 RP의 중심인 RPoV를 부정과거 및 불완료과거로 정하여 현재를 의미하는 축과 과거를 의미하는 축을 완전히 분리해 놓았다.

이러한 구조는 각각 기준 시점 —— 여기에서는 일종의 punto de referencia —— 을 달리하는 두 개의 방향축이 두 가지의 시제구조를 평행적

으로 형성하며, 각기 그 구성요소 간의 의미영역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방향축들 간의 독립성이 이들 간의 파생적 연계성보다 지나치게 부각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PP로부터 동일한 위치에 있는 PP-V와 RPoV가 분리되어 멀어짐에 따라 현재완료(hemos vendido)와 부정과거(vendimos)가 서로 무관한 형태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PPOV의 과거 이동점인 RPoV에 불완료과거(vendíamos)를 위치시킴으로써 “vendíamos”의 기본 의미인 ‘co-pretérito’의 해석——Bello의 관점——이 불가능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PP+V와 APoV가 일치할 수 있고, RP+V와 RAPoV가 일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P와 AP축을 분리하고, RP축과 RAP축을 분리함으로써,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venderemos”와 “habremos vendido” 및 “venderíamos”와 “habríamos vendido”를 각각 무관한 형태들로 구분해 놓은 데 문제가 있다.

Bull의 시제구조가 내포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각 시제 형태들의 연계성을 Bello의 시제이론에 근거함으로써, Bull의 과학적 방법론과 Bello의 일관성 있는 시제 연구를 이상적으로 접목시킨 것이 바로 Rojo(1974)의 시제구조라 할 수 있다. Rojo(1974, 90)의 가상적 시제구조는 삼분법에 의해 무한히 가치를 치고 떨어나가는 형상을 지녀 마치 그 방향축의 수효도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준발화시점을 중심으로 모두 연결되어 그 파생 과정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도표(1)과 같이 추정된 Bello의 시제구조와 골격상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O:origen, S:simultáneo, A:anterior, P:posterior)

〈도표 7〉

이 가상적 구조 위에 표시된 위치들은 기준점(O)과의 관계를 벡터(V: vector)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A, S, P는 각각 O-V, OoV, O+V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A에서 파생된 A', S', P'는 각각 (O-V)-V, (O-V)

oV, (O+V)+V가 된다. 따라서, 기준점에서 가장 멀리있는 A*는 ((O-V)-V)-V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표기 방법은 Bull이 사용한 표기 방법에 비해 기준 시점과의 관계 —— Bello의 단순, 이중, 삼중관계 —— 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와 같은 방법을 서반아어 각 시제형태에 적용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된다(Rojo; 1990, p. 29 참조).

Llego	OoV	Eje	Relación	temporal	primaria
Llegué	O-V		-V	oV	+V
Llegaré	O+V	0	Llegué	Llego	Llegaré
		(O-V)	Había llegado	Llegaba	Llegaría
Llegaba	(O-V)oV		Hube llegado		
Llegaría	(O-V)+V	(OoV)	He llegado		
He llegado	(OoV)-V	(O+V)	Habré llegado		
Había llegado	(O-V)-V	((O-V)+V)	Habría llegado		
Hube llegado	(O-V)-V				
Habré llegado	(O+V)-V				

〈도표 9〉

Habría llegado ((O-V)+V)-V

〈도표 8〉

Rojo는 서반아어의 각 시제 형태들을 도표(7)에서 정의하고, 도표(8)과 같은 시제구조를 확정하였다. 이 시제구조는 외형적으로 대과거(había llegado)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Bello의 생각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Bello는 대과거를 기준발화시점과 삼중 관계에 있는 시제로 간주하였으나, Rojo는 Gili Gaya(1961)와 Esbozo(1973)가 기술해 놓은 것처럼, 이 형태에 직전과거(hube llegado)와 동일한 시제적 의미((O-V)-V)를 부여함으로써, Bello의 문법이 씌어진 당시와 비교하여 변화된 오늘날의 시제 용법을 구조 속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Rojo는 불완료과거(llegaba)를 정의함에 있어 Bello의 정의 —— copretérito: (O-V)oV —— 를 그대로 수용하여 부정과거(llegué)와 불완료과거의 대립을 순수한 시제의 대립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Rojo가 이 두 형태를 순수한 시제의 대립으로만 간주하는 이유는 시간

의 방향축을 설정함에 있어, 도표(8)에서 보는 것처럼, 기준발화시점 외에도 다른 4개의 기준점이 정해지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된 각 형태의 기본적 시제 의미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데 있다.

불완료과거(*llegaba*: (O-V)oV)와 현재완료(*he llegado*: (OoV)-V)는 ‘동시성’을 의미하는 oV를 내포하고 있어 두 형태 모두 실제의 용법상 부정과거(*llegué*: O-V)의 의미 영역과 일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세 형태들은 주어진 문맥에서 얼마든지 상의 대립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Rojo의 시제구조는 Bello의 시제구조와 함께 상의 대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약점을 지닌다.¹⁵⁾

Rojo는 각 시제 형태가 표현하는 의미의 구분에 있어서도 Bello의 이론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Rojo는 Bello가 정리한 이차적 의미 *sgdo. secundario*와 은유적 의미 *sgdo. metafórico*를 통합하여 시제 의미의 전위현상 *dislocación temporal*(Rojo; 1974, p. 96 참조)으로 규정함으로써, Bello가 일찌기 암시한 바 있는 이러한 의미 분화가 일정한 규칙 *ley constante*에 의거한다는 Bello의 직관을 비로소 시제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법칙으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Rojo의 규칙화 작업도 결국, 주로 「POS-」를 내포하는 형태들——‘추정’의 미래형: *cantaré, cantaría, habré cantado, habría cantado*——이 일정하게 시제외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Bello의 직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Bello의 시제이론이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력을 지녔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된다.

V. 결 론

본고의 2, 3, 4장을 통하여, Bello의 시제이론을 포함하여,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전통문법과 구조 및 기능문법에 속하는 주요한 시제이론들을 살펴보고

15) Rojo는 서반어 동사에 있어 문법적 상 *aspect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만약 상이 존재한다면, *estar+gerundio, empezar a+infinitivo, acabar de+infinitivo, ir+gerundio* 등과 같은 동사구예나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결국 어휘적 상 (*Aktionsart*)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ojo G. “Relaciones entre temporalidad y aspecto en el verbo español”, *recogido en Tiempo y aspecto en español*, ed., I. Bosque, Cátedra, Madrid, 1990, pp. 17~41 참조).

다. 결론지어 말하자면, 전통문법 내에서 이루어진 시제 연구들은 Bello의 문법에 기술된 시제의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반복하여 수용하고 있으며(RAE, Gili Gaya), 구조 및 기능문법의 경우에도, 비록 방법론상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 시제 연구에 상의 개념을 도입하거나(Alarcos), 화법의 개념을 포함하기도 하였으며(Pottier, Lamíquiz, Hernández Alonso 등), 나아가서는 시간의 가상적 방향축을 설정하여(Cartagena, Bull, Rojo), Bello의 시제이론이 지니는 평면적 정체성을 극복하려 했지만, 서반아어의 시제 연구는 결국 1847년에 그 첫 모습을 드러낸 Bello의 이론으로 다시 환원(Rojo)하는 역사적 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Bello의 문법 속에 포함된 시제이론이 역사적 관점에서 다시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개별언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일반 이론의 적용보다는, 대상 언어가 갖는 특수성을 조직적으로 밝히는 것이라는 서문법 연구의 기본 정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Juan José Acero(1990), Margarita Suñer(1990) 등의 경우처럼, 시제의 구조화 작업보다는 각 형태의 논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규칙화 작업에 치중하고 있는 연구는 Bello의 이론과 직접적 연관성이 결여되었기에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는 각 시제 형태의 개별적 의미와 용법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와 용법의 기술에 반영된 Bello의 관점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Aiarcos Llorach, E., 1949, "Sobre la estructura del verbo español", pp. 50 ~89, y 1975, "Otra vez sobre el sistema verbal español", pp. 120~147, recogidos en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Madrid, Gredos, 1984.
- Alonso, A. y Henríquez Ureña, P. 1964, *Gramática castellana*, Buenos Aires. Losada.

- Bello, Andrés, 1847,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Ed. crítica de Ramón Trujillo, Tenerife, ACT., 1981.
- , (1982),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EDAF.
- Benveniste, Emile, 1966, *Problemas de lingüística general, I, II*, México D. F., Siglo XXI.
- Bull, William E., 1960, *Time, Tense and the Verb: A Study in Theoretical and Applied Linguistic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Spanish*, Berkeley and Los Angeles, Publications in Linguistics, XIX.
- Cartagena, Nelson, 1978, "Acerca de las categorías de tiempo y aspecto en el sistema verbal del español", *REL*, VIII, pp. 373~408.
- Cerny, Jiri, 1972, "Tiempos pretéritos compuestos y la estructura del sistema verbal", *Español Actual*, 22 oct., pp. 1~10.
- Gili Gaya, Samuel, 1961,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arcelona, Bibliograf.
- Gómez Asencio, José J., 1981, *Gramática y categorías verbales en la tradición española (1771~1847)*, Salamanca, Ed. Univ. de Salamanca.
- Hernández Alonso, César, 1973, "Sobre el tiempo en el verbo español", *REL*, III, pp. 144~178.
- , (1984),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Madrid, Gredos.
- Lamíquiz, Ibañez, Vidal, *El sistema verbal del español*, Málaga, Agora.
- Nebrija, Antonio, 1492,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estudio y edición de Antonio Quilis, Madrid, Ed. Centro de Estudios Ramón Areces, 1989.
- Pottier, Bernard, 1975, *Gramática del español*, Madrid, Alcalá, versión española de Antonio Quilis, 3ed.
- Real Academia Española, 1771,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Impr. de D. Joaquín de Ibarra.
- , (1913),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Perlado, Páez y Cía.
- , (1931),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 , (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

- rid, Espasa Calpe.
- Royo Guillermo, 1974, "La temporalidad verbal en español", *Verba*, I, pp. 68~149.
- , (1988), "Temporalidad y aspecto en el verbo español", *LEA*, X/2, pp. 195~216.
- , (1990), "Relaciones entre temporalidad y aspecto en el verbo español, recogido en *Tiempo y aspecto en el verbo español*, ed. Ignacio Bosque, Madrid, Cátedra, pp. 17~43.
- Salvá, Vicente, 1830,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según ahora se habla*, París, Librería Hispano-América.
- Suñer, Margarita, 1990, "El tiempo en las subordinadas", recogido en *Tiempo y aspecto*, ed. Ignacio Bosque, Madrid, Cátedra, pp. 77~105.
- Suñer, M. y Padilla Rivera, J., 1987, "Concordancia temporal y subjuntivo", *Hispania*, 70, pp. 634~642.
- Togeby, Knud, 1953, *Mode, aspect et temps en espagnol*, Copenhague.

**Una Revisión de la Gramática de Andrés Bello:
con Especial Atención al Sistema Temporal del Verbo**

Kim, Han-Sang

En este trabajo hemos realizado una revisión de la teoría de los tiempos verbales de Andrés Bello y su influencia en los posteriores trabajos tanto en la gramática tradicional como en la estructural-funcional. A lo largo del estudio hemos comprobado que la gramática tradicional repite casi fielmente el contenido estructurado por Bello haciendo, cada vez que consideran necesario, ligeras modificaciones (RAE, Gili Gaya), y, en la gramática funcional, aunque se percibe un cambio fundamental en el método de análisis introduciendo el concepto de aspecto gramatical en la estructuración del sistema temporal (Alarcos), o incluyendo la oposición actual/inactual (Pottier, Lamíquiz, Hernández Alonso, entre otros), o bien estableciendo ejes hipotéticos de orientación temporal (Cartagena, Bull y Rojo), la teoría de tiempo verbal del español retorna a la de Bello que apareció por primera vez en 1847 (Rojo), dando como resultado una circulación histórica.

Nuestra creencia de que es aun válido reestimar, desde el punto de vista histórico, la teoría del tiempo verbal estructurada en la gramática de Bello se basa en nuestra inclinación de explicar y enumerar las particularidades de la gramática española. En otras palabras, tal como aclaró Bello en el prólogo de su gramática, la descripción gramatical de una lengua dada se debe realizar considerando las particularidades de dicha lengua y no bajo la luz de una gramática universal. Por tanto, en

el presente trabajo, no hemos incluido las investigaciones como las de Juan José Acero(1990) y de Margarita Suñer(1990) que se centran en la interpretación lógica de cada tiempo verbal sin prestar atención a su estructuración. Tampoco hemos realizado el análisis de cada tiempo verbal ya que no constitufa nuestro objetivo principal, quedando como tarea para la próxima oportunidad.